

전남도교육청, 도청과 교육협력 나섰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처음으로 구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전남도청과 교육협력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교육 수요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교육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학부모와 도민의 전남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협의회를 구성했다.

첫발을 댄 교육협력 협의회는 올 한 해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 교육협력 협의

교육사업 중복투자 방지·전남교육 만족도 향상 월1회 협의회 정례화...도청 내 대외협력팀 신설

체 구성 지원, 각종 교육협력 사업 발굴·조정·협의, 교육협력 업무담당자 정책협의회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는 지난 13일 교육협력사업 관련 첫 사전 협의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월 1

회 협의회를 정례화해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사업별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회 협의회를 정례화해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사업별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협력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또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교육공동체와의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남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영중 정책기획관은 "전남의 미래는 전남교육에 있다"며 "신설된 정책기획관실 대외협력팀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가교이자 교육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창의성·인성 겸비한 장흥 영재”

장흥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개강식...90여명 참석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은 18일 영재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영재학생 및 학부모, 영재담당교사, 영재업무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 영재 파이팅!’의 합창 합창으로 2019년도 장흥영재교육원 인제 양성의 시작을 알렸다.

개강식에서는 지도교사 소개, 입학 선언, 선서, 장흥영재교육원의 운영현황과 교육활동 및 장흥 영재교육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재교육원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어 2019년 장흥영재의 포문을 열었다.

장흥영재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인문, 발명과 같은 기본교육과정과 심화, 융합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 등은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교육기부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인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학습방식과 팀원 간의 토론 및 탐구 활동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왕명석 교육장은 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 “영재로서의 리더십과 인성을 강조하며, 가지고 있는 재능에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단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단순한 지식과 사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정통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흥=송호빈 기자

광주교에 ‘4·19민주혁명 역사관’ 개관



광주교 교문 돌과, 시내 시위, 경찰 발포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또 광주 4·19혁명 주역인 이병열, 김영용, 윤승용 씨 등의 증언도 함께 전시했다.

20일 개관식 열고 운영 돌입

4·19 전시·체험프로그램 실시

4·19혁명 정신 계승을 위해 광주교등학교에 지어진 ‘4·19민주혁명 역사관’이 20일 개관한다.

18일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 광주교등학교 등에 따르면 4·19민주혁명 역사관이 2016년 공사에 들어간 지 3년여 만인 오는 20일 오후 3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4·19민주혁명 역사관’은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체험학습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의와 자유, 평화로 상징되는 4·19민주이념을 학생들이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상설전시관의 바닥은 4·19민주혁명 당시의 신문기사들로 꾸몄다. 입구 정면은 광주 4·19혁명 최초로 광주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대 전시했다.

광주 4·19, 그 날의 일들을 주제로 묶인 전시에는 광주 4·19혁명 전개 과정을 시간대별로 게시했다. 3·15장승시위부터 이흥길 하숙집 모의, 광주교 교장실 대치, 타중,

조인호 기자



“희생·재도약 전환점 만들겠다”

서장원 박사, 광양보건대 제5대 총장에 취임

광양보건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서장원 박사가 최근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의 축하와 환영 속에 광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지역을 대표하여 정현복 광양시장과 이용재 전남도의회의장, 김성희 광양시의회의장 그리고 여러 시의원이 참석하였고,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김종호 광양문화회장 등 지역 문화계 인사, 시·도의 주요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대학이 지난 25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의 중추 대학이라고 전제하고 다시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 오랜 시간 광양시와 함께 존속하며 지역의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책임질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도록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대학의 현실을 언급하는 대목

에서 서 총장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로 인해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형벌도 받았다”며 교육부의 지원 단절에 더하여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가 겹쳐 대학의 객관적 운영 지표는 악화되고 대학이 침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대학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국가장학금이 정부로부터 지급 중단되며,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학생 장학금으로 내놓는 국약처방을 통해 대학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서 총장은 “전남 최고의 취업률과 특성화된 학과 구성, 국가고시 수석합격자 배출의 저력 그리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믿는 지역사회의 여론에서 대학희생의 실마리를 찾자 한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면서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광양=김승호 기자

살레시오여고, 日세이비고와 국제교류학습

학생 37명과 인솔교사 3명 3일간 방문...양국 문화 이해

일본 도쿄 세이비고등학교 학생 37명과 인솔교사 3명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등교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학습을 진행했다.

살레시오여고와 세이비고교는 2011년 국제교류학습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매해 교류를 진행해 왔다. 세이비고등학교 학생들은 살레시오여고 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언어로 인사말 배우기, 한국과 일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기, 협력구·판 뒤 집기, 피구와 같은 체육 활동하기, 전통 놀이 문화 체험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살레시오여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시즈오카 살레시오고와도 국제교류를 진행했다. 그리고 매년 1월에는 살레시오여고 학생들이 세이비고를 방문해 국제교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준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